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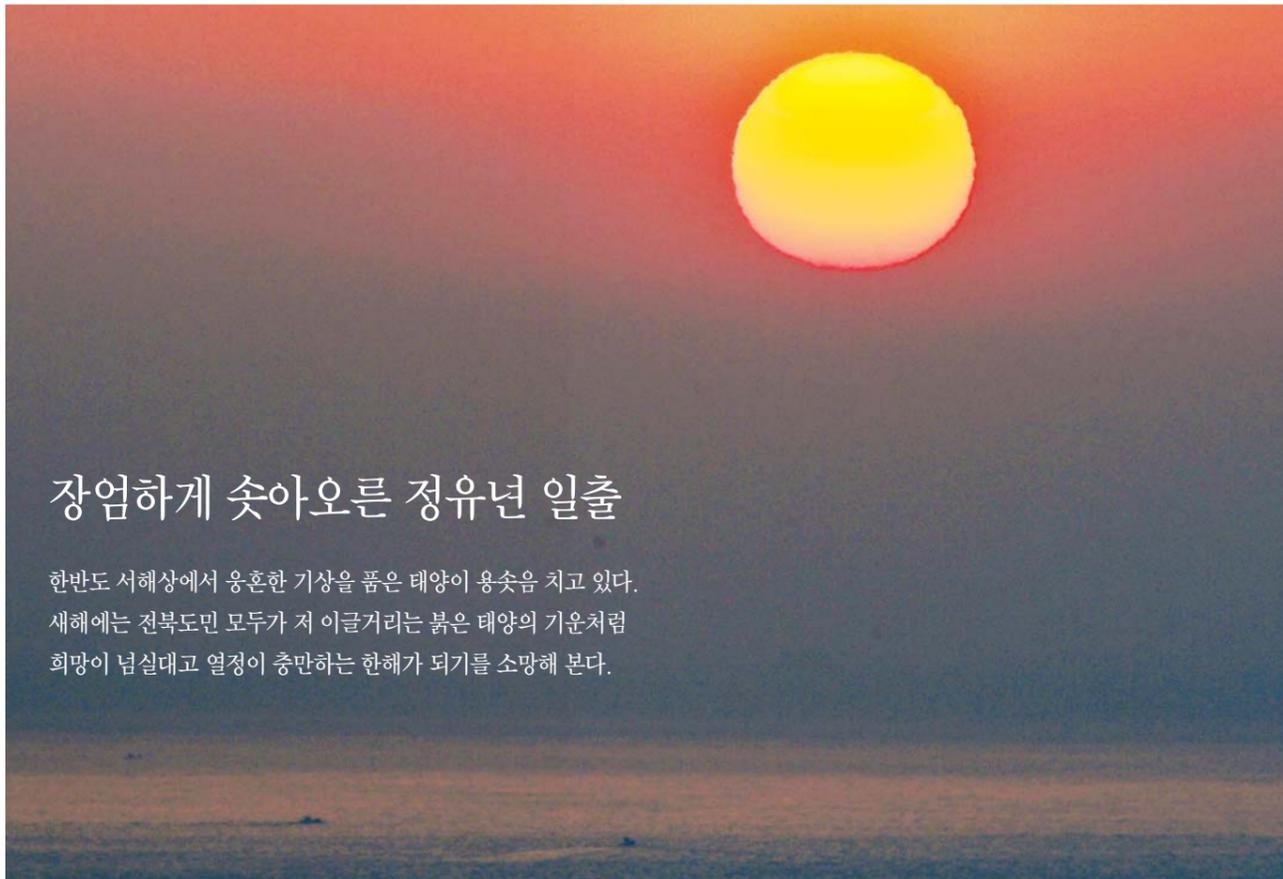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2일 월요일 (음 12월 5일) 제17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장엄하게 솟아오른 정유년 일출

한반도 서해상에서 옹혼한 기상을 품은 태양이 용솟음 치고 있다. 새해에는 전북도민 모두가 저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의 기운처럼 희망이 넘실대고 열정이 충만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반갑다

2017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노래하다

풍남문에서 울려 퍼진 장중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바야흐로 '붉은 닭'을 상징하는 정유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예로부터 닭은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의 하나로,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우렁찬 울음소리를 토해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자명종과 같은 존재였다.

그 뿐이던가. 우리 조상들은 새벽녘 닭 울음소리와 함께 칠혹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운누리에 희망의 빛이 찾아와 밤을 지배하던 모든 악귀들이 촌각의 지체도 없이 물러간다고 믿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유년의 새아침은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미증유의 혼돈에 빠뜨렸던 악귀들의 국정농단을 종식시킬 상징적 의미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은 정유년 원단을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촉발시켰던 박

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쓰나미는 그 파장이 비단 중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국가적 재앙이었다.

이런 혼돈 속에 전북 도내에서도 전형적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와 독자에 연루돼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또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물량이 급감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위기에 직면한 것을 맞아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이었다. 전북도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에서 SI가 발생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닭고기 수급마저 뛰어나 기막히거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는 계기가 됐다. 풍년 속에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의 가슴은 솟덩이가 됐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절망과 좌절을 희망과 긍정으로 만들어 나갔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사회는 정의와 합

리와 공정으로 이끌고 나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올해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 취업문이 활짝 열리고 비정규직이 사라져 양극화 현상이라는 용어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경제가 안정돼 지역업자들과 직장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의 유지로 농민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시민 정해준(55)씨는 "작년에는 지도자 한사람 잘못 뽐은 바람에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올해는 현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제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해,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 매일 INDEX

5면 2016년을 마무리한 촛불 새해를 활하게 비추다

9면 새해 입주물량 증가 2030세대의 집 장만 요령

16면 2017 정유년 국운

17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신년 축시

고마운 우리 전북 사람들

이희찬 <논설위원>

새해 새아침 먼동이 트고 있다
 푸르고 우뚝한 조선 소나무들을 보고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삶은 아름답다고
 예쁜 거짓말을 가르치기엔
 너무나 엄숙한 시간이다
 나 같은 얼치기 어른들이
 지구의 우주여행을 함께하고 있다는 뉘우침은
 이제 겸손한 신발 밑에
 말없이 묻어두어야 한다
 오늘은 상쾌하고 깨끗한 날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 사람들이
 호홉처럼 고마움처럼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쓸모없다는 거친 들판에
 꾸준히 나무를 심던
 먼 나라의 어떤 사나이가 떠오르는데
 그는 인간 세상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을 테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웃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내 살고 있는 우리 고향에도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소생시킨
 '우아동 새막' 이 그렇거니와
 겨울마다 찾아와 성금을 내놓고
 얼굴도 이름도 없이 몸을 감추는
 '노송동 천사' 가 그렇거니와
 봄마다 꽃잔치에 누구나 초대하는
 '투구봉 아저씨' 도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행복한 이웃!
 이런 분들이야말로
 한 세상 살아볼만하다고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내 몽클한 마음의 고백이다
 새해 새아침 찬란한 해돋이 시간
 푸르고 우뚝한 조선 소나무 같다는
 내 부러운 마음의 고백이다

**약력: 1954년 전주 출생
 1985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
 1988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새해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서로가 있어 행복합니다

2017년에도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